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진구 제3선거구 김영옥 의원입니다.
- ☐ 본 의원 외 28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 ☐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현재 마약류 사범의 수는 매년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대 30대가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서울시는 6,271명으로 경기도 6,678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약은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사회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습니다.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는 시·도지사

는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마약류 관련 표현이 포함된 문구나 광고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자 기존에 사용하던 마약류 표현이 포함된 문구 또는 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마약류를 식품명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친화적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